2016년 제 14회 대원상 후보 공모

9월 19~30일까지 접수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은 2016년 제 14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한다. 대원상(大圓賞)은 고(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에 따라,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 하에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 포교법을 창출·장려하기 위해 시상하는 상으로, 포교대상·콘텐츠대상으로 구분해 공모한다.

상금 총액 5,000만원 이내를 수여하는 포교대상은 출가 부문과 재가 부문에 대해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스님 및 재가 개인 또는 단체 3인(곳) 이내를 시상하며, 상금 총액 4,000만원 이내를 수여하는 콘텐츠대상은 불교 미디어 영상포교 자원 개발과 지원을 위해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할 내용(주제 및 소재)의 텍스트·이미지 콘텐츠 분야와 오디오·영상 콘텐츠 분야의 작품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서류 제출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서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한편 대원상은 모범적으로 정진하는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해 매년 시상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1천만 원, 특별상은 5백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02)719-2606 **김주일 기자**

출가자 감소 해법 찾기, 전방위 모색

출가제도개선특위 13일 첫 회의… 현황 파악 진행

급감하는 출가자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조계종 전 종도가 힘을 모은다.

중앙종회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만당)는 6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출가제도에 대한 현황을 먼저 파악한 후 개선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제205회 임시회에서 특위가 구성된지 3개월 만에 열린 것이었다. 회의에는 위원장 만당 스님과 수암, 화림, 재정, 재안, 우봉, 도수, 혜일, 진각 스님 등 9명이 참석했다.

특위에서는 향후 출가개선 간담회 및 세미나, 공청회 등을 열고 조계종 전 종도들의 여론을 모아 출가제도 변화를 모색하기로 결의했다. 특위 위원들은 출가 진흥을 위해서 출가제도 뿐만 아니라 출가 이후의 교육제도 개편도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15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으로 규정된 현행 출가제도와 외국인 출가, 귀종승제도 등이 전반적으로 검토된다. 또 행자교육 및 기본교육과정도 검토된다. 이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는 교육원의 현황보고 후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간사로 우봉 스님(호압사 주지)이 선출됐다. **노덕현 기자**

그림 속에 담긴 철학과 신화

조계종 교육원, 7월 6~8일 연수 '철학으로 그림 읽기' 시행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오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016년 승려교육연수 인문·과학·문화 과정의 일환으로 '철학으로 그림읽기'를 개최한다.

그림으로 표현되어 온 신화들과 철학의 사유를 알아볼 수 있는 이번 불교강좌에서는 이주향 수원대 교양학부 교수가 강사를 맡는다.

강좌는 총 6강으로 진행되며, 주요 강의 주제로는 △니체는 왜 신화에 주목했을까 △니체의 차라투스트라 △아폴론적 인간, 디오니소스적 인간 △우리 속의 여신의 유형 △우리 속의 남신의 유형 △그리스 신화의 영웅들 등이 진행된다.

교육원은 "신화는 삶의 원형이며, 문화의 원형이다. 신화를 철학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인류문화의 정신적 지향성을 읽는 것"이라며 "그리스 신화 나아가서 유럽 신화를 들여다보면 세계 신화를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나아가서 인류가 가진 정신적인 지향의 지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좌 접수는 연수교육 사이트(monkedu.buddhism.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02)2011-1807 **신성민 기자**

"대중화·표준화, 수행프로그램 발전 과제"

조기룡 교수, 〈선학〉 기고논문서 주장



재가불자와 일반 시민들이 여법하게 불교 수행을 접하기 위해서는 표준화와 통일성, 철저한 수행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사진〉는 한국선학회 학술지인 〈선학〉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불교 수행별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간화선·절·염불·주력·독경·사경·위빠사나 등을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례들을 분석하고 △불분명한 운영 목적 △체계화·표준화 미비 △지속적 운영 부족 △수행 점검과 지도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불교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당 수의 일반 사찰들은 참선이나 절, 염불, 주력 등이 법사 스님의 경험과 직관에 따라 이뤄진다"면서 "특정 수행의 원리에 따른 통일적 짜임새가 없이 비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교 수행프로그램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행 횟수, 시간, 자세 등에 대한 교단적·종단적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행 점검에 중요성에 대해서는 "근래 한국불교에서는 수행에 대한 점검과 지도가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지만, 수행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수행을 통해 얻은 체험을 법사 스님이 점검하고 지도하는 체계를 갖춘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면서 "수행자의 수행을 점검하고 지도해주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 선지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좋은 불교 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불교적 정체성을 담보하고 대중적이면서 생활에 긴밀히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표준화가 대중의 요구에 편승함을 의미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조 교수는 "요즘 불교 수행의 참여를 요가원이나 건강센터에 회원권을 발부받아 들어가는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불교 수행프로그램 개발은 불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선 사찰 수행프로그램 분석

표준화 미비·운영 지속성 부족

유사 수행법부터 정체성 지키고

대중화된 표준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 양성도 해결할 숙제

대중화와 생활화에 앞서 수행 프로그램의 표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조 교수는 주장했다. 조 교수는 "단위 사찰이나 소규모 조직, 개인 등이 불교 수행을 실참할 수 있도록 제반 수행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일되게 하는 것이 표준화"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각 수행법과 종지종풍이 일치하는 종단이 해당 수행법의 기준을 통일되게 정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수행 전문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는 해당 지도자가 불교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최근 제3수행법들은 자신들이 불교를 차용했다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도 불교적 용어를 이용해 자신의 수행법을 통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획기적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는 불교계를 주요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교 수행프로그램 전문 지도자들은 수행법의 불교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전부지 환수 상징 '한전법당' 철거 되나

서울시 강제철거 계고장 발송

환수위 "강력 대응"

조계종 한전부지환수위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한 천막농성장, 이른바 '한전법당' 철거 가 도마에 올랐다. 현재 조계종 종무원들이 교대로 기도정진하고 있는 한전법당은 조계종 한전부지 환수 의지의 상징이다.

서울시는 6월 13일 '한전법당'의 무단 점거에 대한 철거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무단점거에 대한 변상금을 함께 부과했다.

서울시청 광장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시청 총무과 관계자는 "13일 천막농성장 철거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송했다"며 "서울시의 광장 사용승인을 받지않은 무단시설물에 대한 처리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계고장에는 서울광장 내 천막 등을 6월 20일 오후 6시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관계자는 "철거 계고 이후 미철거 시 영장 발부 및 행정 집행이 이뤄진다"며 "무단 점거 56일분에 대한 변상금도 1차로 부과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1차 변상금은 3월 24일 오후 5시부터 5월 17일 24시까지의 점거에 대한 부분으로 총 916만원이다.

이에 대해 환수위 관계자는 "11일 새벽 서울시 예수재단 시설물 철거 당시에도 한전법당 철거 시도가 있었다"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철거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천막법당은 부처님이 계신곳으로 불법점거물이라는 이유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청광장에 설치된 한전부지 천막농성장. 이른바 '한전법당' 철거를 두고 서울시와 환수위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는 묵묵부답속에 현대차로부터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을 전제로 여러 가지 평가를 생략한 광속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또다른 정경유착"이라며 "한전법당 철거시 제2, 제3의 법당을 세우고 정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산불교聯 16일 밀양공항 반대성명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로 영남지역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산불교계가 밀양신공항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6월 16일 성명을 통해 "신어산, 무척산을 포함한 27개 산과 20여 사찰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다"며 "김해 신어산과 무척산은 다양한 불교 전통 문화를 간직한 곳으로 밀양공항이 들어서면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밀양공항 추진 지자체는 2011년도 계획과 달리 4개 산봉우리만 절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입지선정을 위한 미봉책이며, 결국 항공사고 위험으로 더 많은 산봉우리를 절개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2011년 입지선정 당시 밀양 입지를 주장한 대구불교총연합회는 뚜렷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영남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부산 불심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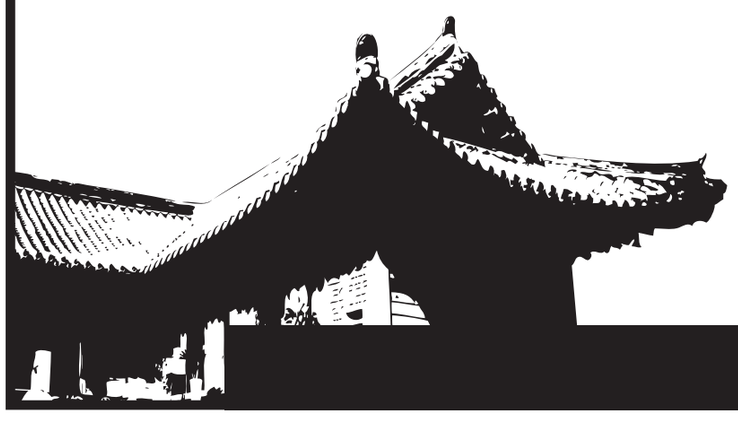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